

## 제6강: 프랑스, 영국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성립

### ◆ 1교시: 프랑스·영국 건축의 르네상스

#### ▲ 팔라디오의 건축의 실례

팔라디오의 실제 작품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팔라디오는 건축 경향에서도 종합화를 바탕으로 한 보편성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기능유형에서도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을 설계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villa, palazzo, 교회, 공공건물입니다. 르네상스를 지탱하던 가장 대표적인 기능유형들이 다 망라된 것이죠. 또한 그것 각각을 통해서 이 네 가지가 사회성이 강한 기능유형이라는 거죠.

그것에 맞는 내용들을 건축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villa는 농업 이상, palazzo는 도시내 권력층을 위한 건물이고 교회는 신교와 가톨릭간의 통합문제, 공공건물은 공공권력의 상징성을 갖죠.

농업 이상을 보면 베네토 지방의 무역량이 늘면서 인구가 늘고 식량이 필요해지죠. 그러면서 농업이 활성화 되죠. 일정한 지역 단위를 다스리는 농업 근거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앞서 토스카나 지방의 villa가 도시의 근거지를 둔 금융가문의 휴양지 겸 문화예술의 장이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라는 겁니다. 같은 villa라도. 여기서는 농업 근거지로서 농업 이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농업은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생산근거였으므로 이 보편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중요했지요. 그러므로 팔라디오는 신전 파사드로 표현합니다. villa에 신전 파사드를 사용한 겁니다.

똑같이 신전 파사드를 쓰더라도 앞의 예, 그림 19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소품화되어 큰 덩어리 속에 부분요소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팔라디오 villa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전 파사드가 소품화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건물 전면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 파사드를 통해서 보편성을 확보합니다. 그 근거로 팔라디오는 고대문명에서 찾지요. 주거와 신전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역사적 근거를 들고 있는 겁니다. 고대문명에서 주거는 농업문명의 근거지이자 농사의 융성을 비는 주술적 기능을 가졌습니다.

서양 신전에 뿌리가 여러 개인데 이 중의 하나가 주거에서 왔다는 겁니다. 물론 주거에서만

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 또한 서양 건축을 이루는 상당히 중요한 뿌리들 중의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 해석을 통해 동시대의 16세기 후반부 베네토 지방의 villa에 요구되는 농업이상을 건축적으로 잘 표현 해냈다는 겁니다. 그 결과 villa는 단순성, 고전질서, 근원성, 실용성, 추상성, 낭만성, 인본성 등 총 일곱 가지의 가치를 표현합니다.

단순성은 기하구성과 정수비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전질서는 대칭비례, 중심위계를 통해서, 근원성은 신전 파사드와 사방위를 통해, 실용성은 규칙성과 기능성을 통해 나타납니다.

기능성을 예로 들면 농업 중심지로서의 가축 사용공간, 농기구보관, 곡물 저장, 주인의 감독 등을 돕는 평면구성을 한 것이죠.

추상성은 기하 환원성과 정육면체 질서, 낭만성은 표면질감과 자연성을 통해 나타나죠, 그 중에서 자연성을 좀 더 보면 농가 모티프, 조경과의 어울림, 픽처 레스크 조경 레스크 등이죠. 인본성은 휴먼 스케일과 소품화된 고전 어휘가 드러내고요.

주택이 이 정도는 되어야지요. 한 사회 단위를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지배계층의 주거라면 비록 집 자체는 수탈일 수 있지만 이 정도 가치는 나타나야지요.

그러나 우리의 지배계층의 정신적 수준은 그렇지 않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villa를 무지하게 많이 설계합니다. 팔라디오의 『건축 사서』는 고정건축의 일반 법칙을 설명한 책이지만 그 중 많은 부분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차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면도 남기고 자신의 건축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villa는 너무 많이 지어서 대표적인 것 말고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명칭부터가 학자에 따라 다른 villa도 많고, 연도도 다르고, 심지어 팔라디오 것인지 아닌지도 문제가 되고요. 팔라디오 것이라도 어느 정도까지가 그의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역사적 기록에 대한 정보들이 부정확한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건물들은 이런 기초적인 정리가 끝났습니다. 대표적인 건물이라면 villa 피산도와 로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 뒤에 363부터 시작해서 371까지 보면 villa 피사니를 비롯해서 몇 개의 대표적인 예들의 사진을 실어놓았습니다.

아까 설명한 일곱 가지가 잘 매치가 됩니다. 이 예들은 한 건물 안에 이 일곱 가지가 다 구현되지는 않았죠. villa 피사니 같은 경우 단순성, 추상성, 낭만성, 인본성 등의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이 일곱 가지 항목이 종합적으로 잘 구현된 건물이 그림 374의 로툰다입니다. 이 건물이 16세기를 대표하고,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을 능가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은 매우 중요한 건물로 추앙받는 이유가 이 일곱 개의 가치라는 것이 좁게 보면 16세기 베네토 지방의 villa에 요구되는 것이지만 확장하면 16세기 르네상스 전반에 가장 기본적인 건축적 가치이기도 하고요.

더욱 확장하면 서양 건축 전반에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들이기도 합니다. 시기나 지역으로 봤을 때 가장 보편적인 것에서 가장 구체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전체와 개체 사이에 통일성, 일체감 등을 얻어냈기 때문에 보편성과 특수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아주 미시적인 시대가치를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거시적인 것까지 나타낸 겁니다. 이것이 훌륭한 건축의 기준이 될 수 있죠. 대표적인 기준이죠. 서양 건축에서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죠.

그 기준을 가장 잘 만족시킨 건물이 바로 이 로툰다 건물이라는 겁니다. 일곱 개의 내용과 잘 맞추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문들을 보면 교회건물이죠. 389까지 나오죠. 평면을 보면 그리크로스와 라틴크로스의 두 가지 유형을 혼용하죠. 구교와 신교를 상징하는 거죠, 중심부분을 강하게 처리한 것은 그리크로스의 중심성을 강화한 것이지만 네이브를 늘어뜨리는 것은 선형성을 강조한 것이죠.

이런 처리를 통해서 중앙 집중성과 선형성을 잘 조화시키고, 특히 실내를 보면 장식이 필요한 곳에는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절제하는 거죠. 이런 분위기는 신교의 절제, 극기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죠.

입면에서 볼 때는 네이브와 아일 사이에 천장 높이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옵니다. 389를 보면 이렇게 처리하죠. 페디먼트가 온전한 것이고 이것은 반쪽인 것이죠.

높이 차이를 처리하는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죠. 바로크 건축에서는 이것이 대표적인 건축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저런 신전 페디먼트 조각을 이용하는 것이 팔라디오만의 방법입니다.

공공건물을 보면 394는 바실리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시민회관 건물입니다. 나란히 마주보고 있습니다. 396은 총독궁이지요, 시청사 겸 세속권력자의 건물이지요. 그래서 이 396은 거대기둥과 수직적인 비례성을 통해 공공권력의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94는 시민 권력이고 396은 통치권력이죠. 그래서 394는 수평선을 사용하고 그 대신 아치를 반복합니다. 이런 것이 로마의 시민정신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팔라

디오의 대표적인 예를 보았습니다.

#### ▲ 알프스 이북 유럽의 르네상스

그 다음 프랑스, 영국의 르네상스로 넘어갑니다. 주로 알프스 이북 국가들인데요. 영불독이라고 부르는 세 나라의 르네상스 건축은 크게 보면 별로 융성하지는 못한 편입니다. 중세의 고딕의 연속성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르네상스의 본거지였던 이탈리아 내에서도 지금까지 살펴본 대표적인 걸작들, 한 세기에나 몇 명 나올까 말까한 건축가들이 지은 걸작들. 20세기로 치면 수많은 건축가들 위에 표면에 드러난 몇몇 건축가들의 예처럼 이런 것들만 르네상스 건물로 지어졌고 실제로 지어지는 많은 민간 건물들은 중세건물도 지어진 겁니다.

따라서 르네상스의 본거지가 아닌 영불독으로 오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진다는 겁니다. 고딕을 전통으로 갖는 알프스 이북의 영불독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는 겁니다.

세 나라가 갈리는데요. 프랑스는 자국의 중세전통에다가 르네상스 양식을 혼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영국은 통째로 직수입합니다. 독일은 별도의 르네상스는 없습니다. 민간건물에서는 지어지지만 대표 건축가로서의 르네상스 건축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독일은 종교개혁의 근거지로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매너리즘 건축은 비교적 독일에서 융성을 합니다. 대부분 이런 차이를 보입니다.

프랑스가 그나마 가장 융성을 했지만 프랑스는 자국 전통과 혼합해내는 문제 때문에 고전의 순도로 보면 떨어집니다. 변질된 고전주의를 볼 수 있죠. 그러나 또 프랑스의 지역전통이 잘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로마네스크를 거치면서 계속되었던 문제 중의 하나가 국제주의와 지역주의이죠. 많은 나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상황이죠. 지금 서양문명과 우리나라 전통문명 사이에 겪는 충돌은 국제화 현상에 따른 것이죠.

그것이 일어나기 전의 유럽에 국한시켜 보더라도 국제주의와 지역주의 간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프랑스가 로마네스크와 고딕까지는 국제적인 양식을 창출해낸 본거지로서 주인 행세를 했지만 르네상스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어쨌든 프랑스는 중세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자국의 전통과 합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도입기, 정착기, 장식기 등의 여러 과정을 겪습니다. 16세기 100년을 르네상스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거칩니다. 그래서 17세기 바로크에 오면서 프랑스가 이탈리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중요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 16, 17세기 이 삼 세기를 초기 근대라고 합니다. 초기 근대의 문은 이탈리아에서 인본주의라는 르네상스를 통해서 열었지만 마지막 완성과 최대 수혜자는 프랑스였습니다. 루이 14세가 대표하는 절대왕정시기지요.

저 때 초기근대에서 나타난 근대적 이상을 비교적 잘 정착시키면서 프랑스가 근대국가의 토대를 맨 먼저 닦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미국이나 유럽의 근대국가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프랑스가 괜히 미국과 맞먹는다고 하고 자존심이 센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초기 근대를 잘 지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국은 Jones라는 사람의 건축가가 17세기 전반부를 장악합니다. 5, 60년 사이에 이탈리아 르네상스 건축을 학생이 교과서를 베끼듯 통째로 직수입합니다.

#### ▲ 프랑스의 르네상스

프랑스 먼저 보면 도입기는 Loire 계곡에 있는 여러 castle, chateau 라고 하죠. 중세 때 지어지던 chateau 골격 위에다가 고전을 어휘별로 차용하는 특징들을 보입니다.

거기도 자세히 보면 전체적인 골격은 중세 골격입니다. 그런데 벽기둥의 것들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파리 근교에 있는 느와르 계곡 같은 곳을 보면 성채들이 차용되고 있는 겁니다.

아님 412처럼 파리에 있는 교회처럼 중세 때 지어진 골격에 네이브 월을 보면 부분적으로 고전 아치와 벽기둥으로 이루어진 아케이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착기 때는 세를리오(Selvio)와 필리에르 드 로름브(Philibert de l'Orme)가 등장합니다.

필리에르의 이름은 오늘 나누어 준 곳에 이름이 나와 있죠. 세를리오는 이탈리아 건축가입니다. 프랑스로 초빙 받아 그곳에 르네상스 건축을 전파시킨 사람이죠. 도입기나 형성기에는 고정건축은 총체성이 중요합니다.

상당히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 건축 규범, 법칙이 많은데 그것을 통째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사용된 성채들을 보면 오더, 개별어휘 중심으로 통용이 되었지요.

이런 프랑스에 고전 중심의 총체성을 심어준 사람이 세를리오입니다. 건축 7사라는 책에서 여러 법칙들을 잘 전수해 줍니다. 그리고 본인도 프랑스에 작품을 남기는데 그것이 415와 416입니다.

평면을 보면 전형적인 프랑스 전통적인 구성입니다. 특히 정면만을 보면 경사지붕, 중앙 몸채와 양쪽의 윙, 측동이라고 하죠. 삼분법 구성이 영불독 세 나라에서 쓰던 전통적인 구성인데요.

이탈리아에서는 단일 육면체 구성이 전통적인 구성이죠. 전체적인 매스 구성을 프랑스 전체적인 구성을 따르고 있지요. 409와 416을 비교해 보면 409의 중세골격은 정리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123층간의 높이 비례도 특별한 법칙이 없지요

416 보면 전체 골격은 프랑스의 것이지만 개별 어휘는 장식이 거의 다 생략되고 표준적인 고전어휘가 잘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를리오가 프랑스에 르네상스 고전주의가 정착하는 중요한 기여를 했고 그것을 이은 사람이 레스코(Lescot)입니다.

레스코부터는 자체적인 프랑스 예술가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세를리오는 이탈리아에서 초빙한 사람이죠. 그것을 토대로 한 것이 417번 그림인 올드 루브르이지요.

409와 416을 합쳐놓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416이 이태리 르네상스 고전주의 원형에 가까운 것이라면 409에서는 프랑스 고전주의가 드러난 것이죠. 416에서는 프랑스다운 정체성은 죽은 거지요.

이 둘을 하나로 합함으로써 고전주의 보편성과 프랑스의 지역전통을 동시에 잡은 거죠. 전체 구성은 고전적 안정감이 잘 드러나고 있지요. 조화, 비례 등이 잘 드러나죠.

개별 어휘도 고정 오도 시스템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세에서 유래된 프랑스 전통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418도 같은 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레스코는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자생적으로 태어난 르네상스 건축가로 볼 수 있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필리베르입니다.

422를 보죠. 여기서 보면 프랑스의 전통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넘어갔죠. 417은 주로 장식을 통해서 표현했다면 이는 훨씬 더 다양한 어휘를 통해 매스 구성 자체가 육면체의 고전적 정형성을 탈피하면서 변화가 심한 겁니다.

반면에 chateau 안에 있는 예배당 건물은 프랑스에 지어진 최초의 중앙 집중형 기독교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베르의 르네상스적 생각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426의 그림입니다.

이탈리아의 고전 오도와는 상당히 다르죠. 프랑스에 맞게 정리를 한 것이고 장식기로 넘어가면 뒤세르소 패밀리가 나오죠.

뒤세르소 가문은 여러 명의 건축가를 배출한 건축가 가문이었습니다. 건축가의 이름이 다르죠. 성만 같고요. 이런 예들은 프랑스의 르네상스 건축이 자리를 잡고난 다음에 발전방향을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 모색한 끝에 고전적 골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골격은 다시 고전주의 중심으로 짜는 겁니다. 균형, 비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전통적인 장식어휘를 부분적으로 첨가하는 과정을 거쳐 프랑스 르네상스가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 ▲ 영국의 르네상스

반면 영국은 16세기까지도 중세 고딕 건축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성채에 있던 주인들이 이탈리아와 정치적으로 깊게 연관이 되어 있었고 예술적인 욕구도 섞이면서 프랑스 르네상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영국은 다분히 정치적 상황에서 시작된 측면이 강하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보였던 여러 혼합 문제 같은 예술적 고민들이 거의 없이 정치적 요구에 의해서 이탈리아 고전주의 르네상스를 통째로 직수입하게 됩니다.

스튜어트 왕조의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를 거치면서 권력이 중심부로 떠오르면서 정치권력의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끼죠. 그 이전까지 있던 고딕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스튜어트 왕조에서 자신들의 대표 양식으로 르네상스 고전주의를 차용한 겁니다.

보통 영국이 프랑스보다 일찍 절대왕정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절대왕정이라는 것은 결국 기독교를 죽여야 하는 거죠. 기독교의 권력을 빼앗아 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원 철폐령 등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 기독교의 대표양식인 고딕과 차별하기 위해서 르네상스 고전주의를 차용하고 인본주의를 후원해서 융성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영국의 르네상스는 상당히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인위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탐색이 없어요.

이 중 대표 선수를 하나 뽑으라면 바로 존스(Jones)입니다 귀족들의 후원을 받아서 베니스 지방으로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팔라디오의 건축 사서와 도면들을 사옵니다.

팔라디오가 만든 건물들을 실제로 가서 보기도 하고요. 돈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지요. 직금도 한 개인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자비로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저 때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귀족들이나 왕실이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고전주의라든가 예술이나 미학 철학 등을 어렸을 때부터 귀족 자제분들에게 개인 교수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귀족들 자신도 여행을 많이 다녀야 합니다. 예술가들도 그들을 수행하며 같이 여행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술가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한 절실하게 이탈리아를 여행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그것을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은 무리니까 연합을 해서 예술가들이 인솔을 해서 가서 설명도 하고 후원을 받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관행이 되어 있었는데 존스는 이런 것을 넘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동한 거죠.

국가사업으로 조직적으로 사 모아 영국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이 17세기 후반의 바로크 건축이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의 예술사조가 자리 잡으려면 여러 방향에서 협동 작업이 일어나야 합니다.

학술적 작업, 뛰어난 예술가, 국가적 지원, 사회적 분위기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며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하나로 통합이 될 때 훌륭한 문화 사조나 예술 사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나서서 날뛰다가는 피곤하게 살다가 좌절하거나 자살하고 그러겠죠. 이니고 존스의 작품을 보죠. 그림 445의 베켓 하우스. 지금도 굳건히 런던 시내에 잘 서있죠.

이런 것을 보면 프랑스보다 훨씬 더 이탈리아 본고장의 고전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 뒷건물을 보면 이탈리아의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잘 드러나죠. 런던 근교의 그리니치에 있는 거죠.

15, 16세기 200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진행되었던 르네상스 고전주의를 50년에 압축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때쯤 오게 되면 고전주의, 인본주의, 르네상스, 이런 것들이 고딕을 완전히 대체하는 보편적 문명체가 됨으로써 그 보조를 뒤늦게 맞추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압축 근대화기를 거쳤던 것에 비견될 수 있는 거죠. 유럽 문명 전체 비추어 보면 존스의 작품은 독립적인 독창성을 갖지 못하는 단순 모방품에 불과하지만 당시 영국이라는 강대국의 상황과 연관시켜 보면 그가 했던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스의 개인 작품은 이탈리아 고전주의 르네상스를 그대로 복사한 아류에 불과하지만 그의 개별적인 건축가로서의 중요성은 많이 거론되는 편입니다. 그 이후 바로크로 이어지는 영국 초기 건축의 씨앗이 된 사람입니다.

못 사는 나라에서 수입하면 그저 모방이 되지만 나중에 그들이 강대국이 되어 이것이 씨앗이었다고 인정을 받게 되면 상당한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일본사람들도 건축이 형편없지만 나라가 잘 사니까 그런 거라고 보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건축보다 발전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요.

나라를 잘 타고 나아 합니다. 못사는 나라에서는 또 그대로 할 것이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에서 존스처럼 하면 안 됩니다. 제3세계에 적합한 건축가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존스는 상당히 재밌는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건축가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대표작이 성 바오로 교회이지요. 나중에 바로크에도 나오겠지만 런던에서는 성 바오로 성당이 유명하고요. 같은 이름의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코벤트 가든의 시장 속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것은 개신교 교회이지요. 이름은 같은데 하나는 성당이고 하나는 교회이지요. 실내를 보면 루터교에서 설파했던 것이 보이죠. 영국도 비교적 루터교의 영향이 컸던 나라죠.

물론 국교는 영국 선교회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개신교인데 내용적으로는 가톨릭과 연합한 형식입니다. 아무튼 이 영국의 개신교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이 개신교의 총본산이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프랑스보다는 개신교 전통이 센 나라죠. 프랑스는 개신교 교회를 거의 못 남겼습니다. 거의 다 가톨릭 성당을 점유해서 같이 쓰고 내부에 우상 그림들만 철거하는 정도였고 독자적인 건축을 창출하지 못했었는데요.

드문 예로서 성 바오로 교회는 개신교의 실내 이상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지요. 이렇게 해서 르네상스는 끝내고 바로크로 넘어가겠습니다.

## ◆ 2교시: 바로크 시대의 시작

### ▲ 바로크 용어의 의미

바로크는 형용사로 쓰면 일반 형용사이고 대문자로 쓰면 고유명사이지요. 건축적으로는 17세기를 전후로 해서 시작됩니다. 일부에서는 18세기 중반까지도 계속된 건축양식이라고 합니다.

후반에는 로코코와 합쳐지죠. 건축경향은 비정형, 곡면, 복합성, 장식,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을 배경으로 갖고 동시에 절대왕정도 해당되지요.

가톨릭은 이탈리아와 신성 로마제국, 독일 위주로 중요한 배경이 되고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절대왕정이 중요합니다. 영국은 둘이 다소 혼합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프랑스는 전적으로 절대왕정으로 루이 14세를 필두로 해서 가톨릭을 압도하며 나아갑니다.

바로크를 소문자로 쓰면 포르투갈어인데요. 자연선 진주 중에 기형 진주를 일컫는 말입니다. 무언가 변형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8세기 신고전주의자들이 17세기에서 탈피하려는 전략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17세기의 예술경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야만 자신들의 예술전략이 합리화가 되지요.

17세기 예술 경향을 바로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신고전주의자들은 르네상스의 전통 고전주의를 이어받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17세기를 구별하는 거죠. 전통 르네상스와 17세기의 경향이 다른데 그것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죠.

일반 형용사로 쓰는 바로크는 좋은 의미가 아닌데 그것을 사용해서 건축 경향으로 만든 거죠. 그리스 건축이 정형이었다면 로마 건축이 비정형 경향이죠.

초기 기독교는 비잔틴, 로마네스크는 고딕, 르네상스는 바로크. 이런 식으로 하나의 큰 틀 안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지중해 문명과 초대교회, 중세교회, 초기근대. 이런 큰 문명사조 안에서 다시 양분이 되는 겁니다.

먼저 정형적인 경향이 대표의 물로 자리 잡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 그것을 응용해서 비정형으로 활용해서 쓰는 겁니다.

15에서 17세기 3백 년 동안에 초기 근대기 동안의 비정형 경향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세기와 관계로 보면 성기 르네상스와 매너리즘, 두 경향 중에 성기 르네상스에 반대하면서 매너리즘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매너리즘과 바로크는 다릅니다.

매너리즘은 반고전주의로 볼 수 있고 바로크는 독립적인 또 하나의 고전주의로 발전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이 다르지만 정통 고전주의를 탈피하려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점을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의 부활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서 개신교가 내걸었던 믿음에 대항하는 가톨릭만의 전략으로 열정을 들고 나오죠. 17세기는 전반적으로 욕망의 시기입니다. 일상사를 보더라도 초콜릿이나 커피 같은 자극성 강한 기호식품들이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아니면 축제 등을 많이 즐기게 됩니다. 여기에 기독교가 더해지면서 나타난 것이 종교적 열정에의 추구입니다. 이것에 맞게 건축 경향도 상당히 자극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르네상스의 정형적인 것에 비해 바로크는 복합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각색들이 더해지는 경향을 특징으로 보이게 됩니다. 건축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가톨릭의 부활에 따라서 트레نت공의회가 열립니다. 공의회라는 것은 중요한 종교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성직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겁니다.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겁니다. 주 기도문에도 공회를 믿는다는 말이 있지요. 1545년에서 63년 사이에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톨릭 예술의 방향에 대한 지침이 나오게 됩니다.

밀라노 대주교였던 보로메오 추기경이 내린 기독교 구조물과 장식 부가물에 대한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로메오는 교회는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강조되어야 하며 평면을 라틴 크로스로 할 것을 명했습니다.

매너리즘까지의 중요한 형태가 중앙 집중형이었다면 여기서 다시 선형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교=중앙 집중형, 가톨릭=선형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인면에 대한 지침도 있었습니다. 조각 장식은 중앙 출입구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그 내용도 성모 마리아의 생애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성모 마리아의 존재가 신교와 가톨릭을 가르는 큰 문제입니다.

물론 다른 차이점들도 있기는 하지만요. 아무튼 가톨릭에는 성모 서원이라고 해서 성모 마리아에게만 드리는 미사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신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미신으로 보는 거죠.

출입구는 거대 오도를 사용한 열주 현관을 선호했고 이런 식으로 가톨릭 예술, 교회 건축에 대한 지침이 내려지고 이것이 거의 바로크 예술의 내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 ▲ 바로크의 전위대-예수회

그 다음이 예수회의 문제입니다. 예수회가 성립되면서 새로운 역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가톨릭 이성을 전파하는 전위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회가 유럽의 각 도시에 대학을 많이 세웁니다.

그 다음 university church라고 해서 이때 들어온 새로운 유형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강대가 그런 경우이지요. 로올라 같은 성인을 추대하는 대학이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회는 상당히 공격적인 수도회였습니다.

그 다음은 건축적으로는 벽채 구조에 집중이 됩니다. 기독교적인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종합예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조각이나 성화 같은 장식이 필요하게 되죠. 자연스레 그런 것의 배경으로 벽채 구조를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정형 경향들을 만들어 내는 데에 있어 가구식 구조보다는 벽채 구조가 유리했다는 겁니다. 벽을 뒤틀고 꼬고 곡면으로 만들고, 르네상스 때는 이 둘이 혼용이 되었죠.

브루넬레스키 같은 경우는 가구식 구조를 선호했고 알베르티는 벽채 구조를 선호했죠. 그 두 개가 혼용이 되었는데 이때는 벽채 구조를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세계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공간 속에서 시간의 역할이 중요해지죠. 시퀀스, 시차를 두면서 공간을 여러 종류의 연속 공간으로 보려고 하죠,

르네상스 때의 통일된 공간과 구별되는 연속 공간의 개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파노라마식 시퀀스입니다. 그 다음이 축제가 유행하면서 장경주의 기법들이 등장합니다. 무언가 축제에 적합한 흥겨움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물을 무대 위에 올려놓은 가공의 인공 세계로 정의하는 기법입니다.

로마 고전주의의 선례 중에 고대 바로크 형식을 많이 차용합니다. 르네상스 건축가들이 로마 고전주의를 차용한 건물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고딕이나 중세선례도 많이 혼용하게 됩니다. 바로크 중세주의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고딕이나 중세의 선례는 장식이나 수직성으로 변안이 되어 나타납니다.

르네상스가 대개 정사각형이나 수평선에 안정된 조형질서 속에 머물렀던 반면 바로크는 수직선의 활성화된 에너지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가톨릭의 열정을 표현하는 조형 매개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크의 큰 개념을 설명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크의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